

1 장 갈뱅과 로올라의 이냐시오의 비교연구 :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최승기 교수 / 호남신학대학교, 영성신학

1. 들어가는 말

갈뱅과 이냐시오는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적대적 관계에 있는 인물로 여겨 온 것이 교회의 일반적 정서이다. 전자는 종교개혁자로, 후자는 반종교개혁의 대표주자로 알려져 있으니 그와 같은 정서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여다보면 양자에게 적지 않은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첫째로, 그들은 16세기라는 격동의 시기를 대표하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서 아마도 왜곡된 이미지로 가장 많은 오해를 받은 인물들 중 하나일 것이다. 갈뱅은 완고하고 냉혈한 같은 종교개혁자의 이미지로, 이냐시오는 교황의 전위부대가 되어 종교개혁에 창을 겨는 폭력적인 군인과 같은 이미지로 후세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온 것이 사실이다. 둘째로, 그들은 파리 몽테규 대학의 동창생이다. 뿐만 아니라 근대 경건운동(Devotio Moderna)의 유산을 담

보하고 있던 몽테규 대학의 영향으로, 두 사람의 영성은 모두 근대 경건운동 영향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고의 주제와도 긴밀하게 연결된 것으로, 양자는 놀랄 정도로 유사한 영적 모토를 지니고 있다. 갈뱅의 영적 모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Soli Deo Gloria)이며, 이냐시오의 영적 모토는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Ad Majorem Dei Gloriam)이다. 이 양자의 신학과 사역의 근본 목적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일하게 자리잡고 있다.

위에 언급한 유사점들은 갈뱅과 이냐시오 사이의 대화를 촉발시키기 위해 충분한 흥미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갈뱅과 이냐시오 사이의 대화가 시도될 것이다. 본 고의 목적은 양자의 대화를 통하여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대화를 보다 촉진시키는 데 있다. 제2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특별히 개혁교회와 가톨릭과의 대화는 빈도나 결과물, 그리고 에큐메니칼 지형도에 미치는 영향 면에서 아주 미미하다고 말할 수 있다.

1. 두 사람의 영성에 끼친 근대 경건운동의 영향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를 비교해 보는 것은 하나의 흥미롭고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두 사람 각자에게 근대 경건운동이 끼친 영향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적은 수이긴 하지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두 인물 사이의 비교연구가 희박한 연유로 근대 경건운동이 양자에게 미친 영향의 비교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근대 경건운동이 갈뱅에게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Lucien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Atlanta: John Knox, 1974)을 보라. 갈뱅의 「영혼의 잠」(*De Psychopannychia*)에 나타난 영혼의 본성에 대한 이해와 근대 경건운동의 대표작인 토마스 아 켐피스의 *The Imitation of Christ*에 나타난 영혼의 본성에 대한 이해의 비교는 비록 책의 여러 부분에 잘막하게 흠어져 있기는 하지만 다음의 책을 보라. George H. Tavard, *The Starting Point of Calvin's Theology*(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2000). 이냐시오에 대한 근대 경건운동의 영향에 대하여는 다음의 글을 보라. Hugo Rahner, *The Spirituality of St. Ignatius Loyola: An Account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trans. Francis John Smith (Westminster: the Newman Press, 1953); Charles J. Healey, "The Imitation of Christ Revisited," in *Notes o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ed. David Fleming L. (St Louis: Review for Religious, 1983), 126-133.

따라서 종교개혁 시기의 적대적 진영을 대표하는 양자 사이의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은 에큐메니칼 대화를 촉진시키는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고에서는 양자 사이의 대화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제한하고자 한다. 본 고의 논지는 갈뱅과 이냐시오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 사이에는 많은 유사점들이 있으며, 차이점들은 서로의 전통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필자는 우선 갈뱅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조사해 보겠다. 그 후에 이냐시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자의 이해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들이 있으며, 차이점들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겠다.

2. 장 갈뱅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

1)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반적 이해

갈뱅의 신학적 작업의 밑바탕에는 강력한 실천적 그리고 목회적인 관심이 짙게 깔려 있다. 그는 단순한 이론적 질문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독교 강요」의 저술 목적에도 잘 드러나 있다. 「기독교 강요」는 교리 총서라기보다는 그 자신의 언급대로 신자들의 경건향을 위한 안내서이다. 그의 신학적 작업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실천적이고 목회적인 관심의 목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영적 모토인 “Soli Deo Gloria”는 그 자신의 삶의 일관된 목적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갈뱅의 신학 전체의 주춧돌에 해당하는 주제이다. 갈뱅이 자신의 신학을 체계화한 가장 중추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논증하고,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버드 대학교수인 마가렛 마일스는 “갈뱅의 신학적 안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하는 것”²⁾이라고 바르게 지적한다. 가톨릭 사학

자인 루이 부이에 또한 갈뱅의 최우선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확증한다. 그는 “갈뱅이 개신교 영성에 끼친 가장 중요한 공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개념이다. 아니 보다 더 잘 표현해 본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기독교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이다.”³⁾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갈뱅의 신학적 작업의 핵심적 모티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은 채 그 용어를 사용한다. 따라서 그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은 그 용어가 사용된 맥락 안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뱅이 이해하고 있는 바에 대한 일반적 그림은 그려 볼 수 있다. 우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실 때, 즉 하나님의 임재 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majesty)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에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은 때때로 서로 교환해서 사용될 수 있다.

처음 세 가지 간구를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유익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시켜야만 한다. ……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엄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⁴⁾

하나님은 그 자체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이 그분의 모든 사역과 모든 피조물 안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했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분

2. Margaret R. Miles, "Theology, Anthropology, and the Human Body in Calvi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4(1981), 304.

3. Louis Bouyer,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vol. III (London: Burns & Oates, 1969), 93.

4. John Calvin, *Calvin: Commentaries*, ed. & tr.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286.

명하게 그들의 창조주를 드러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⁵⁾

하나님의 영광은 또한 하나님의 광휘(splendor)를 의미한다. 이 하나님의 광휘는 지혜, 능력, 정의, 사랑, 자비, 그리고 선하심과 같은 하나님의 속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적 속성 그 자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진실로 우리가 우주의 모습을 통해 빛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광채, 정의, 선하심을 적절하게 설명하려고 든다면, 그 어떤 화려한 수식이나 교언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위대한 행위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데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⁶⁾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성, 능력, 지혜, 선하심, 진리, 의, 그리고 자비를 제외하고는 인식되어질 수 없다. ……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이제 영원성, 지혜, 선하심, 그리고 의로우심, 이 모든 것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⁷⁾

나는 여기서 두 번 반복된 영광이란 단어는 수사학적 표현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⁸⁾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 하나님의 속성들로부터 방출되는 하나님의 위엄과 광휘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즉, 하나

5.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ed. David W. Torrance & Thomas F. Torrance and tr. Ross Mackenzie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1), 31 (Rom 1:20).

6.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nst.)*, ed. John T. McNeill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n. d.), 1.14.21.

7. John Calvin, *Commentary upon the Epistle of Saint Paul to the Romans*, ed. H. Beveridge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7), 28.

8.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212 (Rom 9:23).

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첫째, 깎쟁은 하나님의 능력, 지혜, 선하심은 창조, 특별히 자연 질서 안에서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안에서 밝히 빛나고 있다. 그는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휘황찬란한 극장”⁹⁾이라고 일컫는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은 복음 안에서 더욱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난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난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완벽한 형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에 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날마다 행하시는 모든 판단들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은 주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자애로우시며 스스로 고난을 당하시어 죄인들과 화평을 이루신 데서 드러난다; 그렇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죄인들이 자신과 화해를 이루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의 의지로 죄인들을 초청하시고 기다리신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¹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난 곳이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곳이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치 장엄한 극장에서처럼, 하나님의 측량

9. *Inst.*, 1.5.8.

10. John Calvin, *Corpus Reformatorum: J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uilielmus Baum, Eduardus Cunitz, and Eduardus Reuss (Brunswick: C. A. Schwetschke & Filium, 1863-1897), vol. 43, col. 428; 재인용함.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Louisville: John Knox Press, 1989), 39.

할 수 없는 선하심이 온 세계 앞에 밝히 드러난다. 진실로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아무리 고등 생물이든 하등 생물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영광은 빛난다. 그러나 십자가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밝게 빛나는 곳은 없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놀랍게 변화되는 곳, 모든 인간이 범죄하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곳, 죄가 씻어지는 곳, 구원이 인간에게 회복되어지는 곳, 요약하자면 전 세계가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선한 질서로 회복되는 곳이다.¹¹⁾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선적으로 십자가, 즉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에서 가장 온전히 드러난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깎쟁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선 하나님의 위엄과 광휘를 인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과 명예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 점에서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위엄과 광휘를 인정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잘 아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The knowledge of God)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의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인데,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위엄을 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명예를 드리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음으로 드러나는 영광은 하나님의 지혜, 선하심, 의로우심, 능력과 다른 모든 범접할 수 없는 탁월함에 대한 인간의 이해 여부에 달려 있다.¹²⁾

11. *Ibid.*, vol. 47, col. 316; 재인용함.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39.

12. John Calvin, *Calvin: Commentaries*, 286.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차가운 사변에 머무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명예롭게 하는 것을 동반한다.¹³⁾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형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분의 영원성, 지혜, 좋으심, 그리고 정의에 합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성들을 인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사악하게 탈취했다는 비난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다.¹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로 성서를 통하여 획득된다. 따라서 성서를 통해 획득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기초하여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최선의 길들 중의 하나이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함으로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꺾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울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첨가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인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명예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한 은혜를 거부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없다.¹⁵⁾

13. *Inst* 1.12.1.

14.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32(Rom 1: 21).

15. *Ibid.*, 99(Rom 4: 20).

2)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구체적 이해

꺾배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는 그 구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이미 언급했다. 이제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이해를 배경으로 그의 여러 신학적 개념들과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다.

(1) 창조,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꺾배에 의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우주를 “하나님의 영광의 장관”¹⁶⁾이라고 칭한다. 왜냐하면 “우주의 교묘한 질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일종의 거울”¹⁷⁾이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시장”¹⁸⁾인 우주는 인간들에게 창조주이며 모든 피조물의 주관자 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피조물들의 즉각적인 목적은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섬기는 데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피조물에 의해서, 특별히 인간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는 데 있다. 방델은 “(꺾배가 생각하는 창조의) 참된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모든 경우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정확하게 지적한다.¹⁹⁾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형상의 적절한 자리인 영혼이다.²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에 담겨져 있고,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차적인 자리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

16. *Inst.*, 1.5.5.

17. *Inst.*, 1.5.1.

18. Diana Butler, “God’s Visible Glory: The Beauty of Nature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and Jonathan Edward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2(1990): 19.

19. Francois Wendel, *Calvin: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 Philip Mairet(Grand Rapids: Bakers Book, 1997), 171.

20. *Inst.*, 1.15.3.

는 용기이다.²¹⁾ 인간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다. 따라서 갈뱅은 모든 인간은 선하든지 악하든지 관계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고양하는 데 공헌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²²⁾

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의무이긴 하지만,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도록 소생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오를 수 없다. 갈뱅은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본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우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초자연적 은사들을 모두 상실했다. 영혼은 “하나님의 임재”²³⁾를 상실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소멸시켰다.”²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빛나고 있는데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상할 줄 아는 참된 관객을 백 명 중에서 단 한 명도 찾기가 쉽지 않은”²⁵⁾ 이유이다. 비록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각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훼손시켰지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연의 영역을 소멸시키지 못하며, 창조 안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도 좌절시키지 못한다.²⁶⁾ 하나님의 영광은 자연 속에서 여전히 빛나고

21.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Epistles of Paul the Apostle to the Romans and to the Thessalonians*, 213(Rom 9:24).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차적 자리라는 사실이 오직 영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갈뱅은 다음과 같이 강하게 주장한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의 일차적 자리가 정신과 마음 혹은 영혼과 영혼의 능력들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인간의 모든 부분들 가운데서, 심지어 몸 그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지 않는 곳은 한군데도 없다.” *Inst.*, 1.15.3.

22. *Wendel*, 171.

23. John Calvin, *Psychopannychia*, in *Calvin's Selected Works vol. 3*, ed. & trans. Henry Beveridge(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454.

24. *Inst.*, 2.1.4.

25. *Inst.*, 1.5.8.

26. Susan E. Schreiner, *The Theater of His Glory: Nature and the Natural Order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Durham: Labyrinth Press, 1991), 5.

있으며, 자연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창조주이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 즉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고 갈뱅은 주장한다.

(2) 칭의, 성화, 영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죄로 인해 야기된 이중의 곤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인간은 이중의 은총을 필요로 한다. 그 이중의 은총은 ‘값없이 주어지는 화해, 죄의 용서, 칭의’와 ‘새로운 삶, 영적 쇄신, 성화’이다.²⁷⁾ 이 은총은 그리스도와 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칭의와 성화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관대하심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졌다. …… 그리스도께 참여함으로 우리는 이중의 은혜를 받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흠 없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하늘에서 심판자 대신 자애로우신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흠 없고 순결한 생활을 계발할 수 있게 되었다.²⁸⁾

칭의와 성화는 구별되는 것이지만 분리될 수 없다. 변화시키는 은혜는 의롭게 하는 은혜와 항상 쌍두마차를 이룬다.²⁹⁾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개인의 신분의 변화와 연관되고, 성화는 한 개인의 내부에서의 변화와 연관된다.³⁰⁾ 전자는 단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후자

27. *Inst.*, 3.3.1.

28. *Inst.*, 3.11.1.

29. Jonathan H. Rainbow, “Double Grace: John Calvin's View of the Relationship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Ex Auditu* 5(1989), 102.

30. Lucien Joseph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106.

는 이 땅의 삶에서는 결코 완결되지 않는 점진적이고 계속되는 과정이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의를 획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칭의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의 심판의 행위이다.”³¹⁾ 그 심판은 우리 죄인들이 유일하게 의로우신 분과 교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이다. 이 점에서 갈뱅은 칭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전이된 것으로 이해한다. 반면, 중세의 일반적인 영성에서 칭의는 하나의 내적인 변화로 이해되었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의해 의롭다고 선언된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칭의에 대한 어떤 공로도 내세울 수 없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는 “우리 중 누구라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할 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고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일정 부분 손상시키고 있는 것이다.”³²⁾라고 주장한다. 이 점에서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시키고, 반면 ‘공로를 통한 칭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소시킨다고 갈뱅은 믿는다. 그러므로 그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교리를 주장하고 옹호할 때, 그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다. 그는 “그 누구도 신성모독을 범하지 않고는 의의 한 부스러기에 대해서도 자신의 공적을 내세울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엄청나게 깎아 내리고 탈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³³⁾라고 주장한다. 갈뱅에겐 ‘믿음을 통한 칭의’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봉사한다.³⁴⁾

31. William Niese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 Harold Knight(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6), 132.

32. *Inst.*, 3.13.1.

33. *Inst.*, 3.13.2.

34. *Inst.*, 3.13.1.

칭의와 성화는 불가분리하다. 즉, 성화가 동반되지 않는 칭의는 진위가 의심되며, 칭의는 성화가 자라날 기름진 옥토를 제공한다. 오직 믿음을 통한 칭의만이 참된 성화의 유일한 토대가 될 수 있다.³⁵⁾ 성화는 전 일생에 걸쳐 계속 진행되는 영적 쇄신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거룩과 원 질서의 회복을 의미한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죽기 전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매일매일 싸워야만 한다.³⁶⁾ 여기서 우리는 갈뱅이 ‘거룩에로의 자라감’이라는 개념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또한 원 질서의 회복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갈뱅에겐 하나님의 형상과 참된 질서는 서로 교환하여 사용될 수 있는 용어이다. 잃어버린 질서의 회복에 대한 필요성은 개인에게로만 제한되지 않고 인간 사회와 자연까지 확대된다. 갈뱅에겐 “우주 혹은 인간 혹은 정부이든지 관계없이, 그것들 안에서의 참된 질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이다.”³⁷⁾ 따라서 하나님 형상의 회복은 인간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회복되면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게 된다. 고린도후서 3:18을 그는 다음과 같이 주해한다.

‘바울’은 거울에 비친 이미지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다음의 세 가지 점을 밝히 드러낸다. 첫째, 우리가 복음에 접근할 때 우리는 불명료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베일을 쓰지 않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때문이다. 둘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여 죽은 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

35. John H. Leit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89), 97.

36. *Inst.*, 3.3.14, 3.3.20.

37. Richard, 112-113.

상으로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들 중 그 어떤 것도 단번에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된 진보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과 더욱 일치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라는 말씀의 의미이다. …… 복음의 목적은 죄에 의해서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이고, 이 회복은 점진적이며 우리의 전 일생에 걸쳐 계속되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시기 때문이다.³⁸⁾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들어갈 때, 즉 종말의 순간에 온전히 완성된다.

(3)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과 하나님의 영광

갈뻡에 의하면,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 없이는 칭의나 성화도 일어날 수 없다. 신비적 연합은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의 은총을 받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칭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즉각적 결과이고, 성화는 신비적 연합의 지속적인 결과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란 영적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연합을 의미한다. 이 연합은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신비롭게 발생한다. 갈뻡은 바울의 신비에 대한 이해에 의존하여 신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용어는 중세의 금욕주의에서 사용한 의미와는 달리 단지 불가해성을 의미한다.³⁹⁾ 그는 “그리스도와 믿는 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연합의 신비는 그 본질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분

명하게 밝힌다.⁴⁰⁾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연합은 믿는 자와 그리스도 사이의 어떤 본질의 혼합이나 존재론적인 동일시화를 포함하지 않는다. 오히려, 연합은 성령의 영향에 의한 영적인 교제(communion)를 의미한다. 그는 요한복음 17: 21의 주석에서 이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본질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 왔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과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은총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⁴¹⁾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전 존재의 영적 쇄신을 초래한다. 이러한 연합은 계속 진행되어지는 과정이며, 매일매일 깊어진다.⁴²⁾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되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쇄신되게 된다. 이 영적 쇄신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으로 불타오르게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4) 경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열망은 성령에 의해 영적으로 쇄신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징이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갈뻡의 응답은 경건의 실천이다.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전 삶은 반드시 경건의 실천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화어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⁴³⁾ 경건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바른 태도를

38.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he Apostle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50.

39. 1 Cor. 2: 7, Eph. 5: 32, Col. 1: 26-27 등. 다음을 보라. Jae Sung Kim, “Unio Cum Christo: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Calvin's Theology” (Ph. 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8).

40. *Inst.*, 4, 17, 1.

41.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11-21 and The First Epistle of John*, ed.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Wm. B. Eerdmans, 1961), 148. 또한 다음을 보라. Wendel, 238.

42. *Inst.*, 3, 2, 24.

43. *Inst.*, 3, 19, 2.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다.⁴⁴⁾ 하나님을 향한 개인의 바른 태도는 하나님을 참되게 아는 것에 그 토대를 두며, 참된 예배로 표현된다. 이 점은 갈뱅이 내린 경건에 대한 간결한 정의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는 경건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앞으로 짚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반된 경배’로 정의한다.⁴⁵⁾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와 주로 “경험”⁴⁶⁾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는 것을 염려하며,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게 된다.⁴⁷⁾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은 경건을 실천하는 데서 드러나며,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두려워하며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드러난다.

경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결코 완성품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다. 성령에 의해 영이 새롭게 됨으로 우리는 일생 동안 진행될 경건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 이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되는 경건의 훈련’이다.⁴⁹⁾ 이 경건의 훈련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 놓인 하나의 본보기’이기 때문이다.⁵⁰⁾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외부에 있는 모범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다.

44. Sou-Young Lee,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in *Calvinus Religionis Vindex*, ed. E. Neuser (Kirsville: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77), 234.

45. *Inst.*, 1.2.1.

46. William J. Bouwsma,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in *Christian Spirituality II*, eds. J. Raitt, B. McGinn, and J. Meyendorff (New York: Crossroad, 1987), 323. 부스마는 ‘경험하다’가 ‘알다’보다 더 갈뱅의 의미에 적합한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47. *Inst.*, 1.2.2.

48. *Inst.*, 1.4.4.

49. Richard, 101.

50. *Inst.*, 3.6.3.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와의 신비적 연합에 참여해야 하며 동시에 그 신비적 연합을 외부적으로 실천해야만 한다. 모범은 그리스도와와의 신비적 연합의 실천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반드시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해야만 한다. 그 세 가지는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 그리고 다가올 생애에 대한 묵상이다.

첫째, 자기 부인의 실천은 이중의 방향성을 띤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자기 부인의 실천이 그것이다. 전자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⁵¹⁾ 이러한 복종을 통해 자기중심적 자아는 하나님 중심적 자아로 변화된다. 하나님 중심적 자아란 영혼이 모든 이기적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열려 있게 된 자아를 의미한다. 자기 부인은 우리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묵상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그 어떤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⁵²⁾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러야만 한다. 자기 부인은 또한 참된 이웃 사랑의 토대이다. 갈뱅은 자기 부인이 없이는 이웃을 참되게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⁵³⁾ 따라서 이웃 사랑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고양되어질 수 있다. 첫째, 오직 우리의 재능과 소유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다. 둘째,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갈뱅은 “이웃 사랑은 이웃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데 달려 있다.”고 말한다.⁵⁴⁾ 자기 부인의 유일한 관심은 참된 이웃

51. *Inst.*, 3.7.10.

52. *Inst.*, 3.7.1.

53. *Inst.*, 3.7.5.

54. *Inst.*, 3.7.6.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⁵⁵⁾ 이 점에서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적 경향성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십자가는 훈련, 책벌, 그리고 박해를 통하여 경험된다. 훈련의 십자가는 삶의 일상적인 고통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때때로 하나님의 특별한 책벌은 '우리 과거의 허물을 수정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고안된다.⁵⁶⁾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으로 경험된다. 갈뱅에게 있어 고난 그 자체는 어떤 의미도 지니지 않는다. 그는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언급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와 그리스도 사이의 교제는 더욱더 강화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식이다.⁵⁷⁾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데서 빛나게 된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다가올 생을 묵상해야만 한다. 갈뱅은 현재의 생을 경멸하고 미래의 생을 묵상하라고 권면한다. 여기서 그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다가올 생에 대한 묵상의 강조는 결코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준다. 미래의 생에 대한 묵상은 희망의 샘이 되어 제자로서 당하는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길 힘을 제공해 준다. 갈뱅의 신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함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을 강조하는 이유를 설명

55. Richard, 124.

56. *Inst.*, 3.8.6.

57. Wendel, 250.

하면서, 칼 바르트는 갈뱅이 이해하는 이생과 다가올 생의 관계를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영원은 모든 시간을 부정하는 것, 시간의 근저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영원은 시간의 어느 시점의 한순간이나 시간과 전혀 다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시간의 매 순간의 근원적인 유한함과 그 유한한 것의 초월적 내용으로서 간주된다. 이 개념은 시간의 가치를 배제하거나 시간을 텅 빈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오히려 오직 시간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만 시간을 완전히 비워 내는 것이다. 이 개념은 시간을 매우 중요한 훈련의 장소로 만든다. 시간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은 그러나 모든 것이 영원과의 관련 하에서 판단되고 결정되는 의미로 충만한, 해야 할 과제로 충만한 장소이다.⁵⁸⁾

그러므로 다가올 생에 대한 묵상은 '이 세상을 향한 야만적인 사랑에 자연적으로 이끌리는 경향성으로부터 우리를 빼내 오는 가장 좋은 수단'이며 '우리의 나태함을 털어내는 것'이다.⁵⁹⁾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⁶⁰⁾는 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도록 돕는 최선의 수단이다.

3. 로올라의 이나시오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

1) 삶의 여정을 통해 본 일반적 이해

이나시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나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

58. Karl Barth, *The Theology of John Calvin*, trans.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William B. Eerdmans, 1995), 155.

59. *Inst.*, 3.9.1.

60. *Inst.*, 3.9.3.

여'라는 용어를 특별한 정의 없이 사용한다. 그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는 '자서전'과 '영성수련'에 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그의 편지들과 일기, 그리고 그가 작성한 예수회 헌장에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다. 여기서는 그의 '자서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만을 알아보겠다. 우선 생의 전 여정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냐시오의 일반적 이해를 조사해 보겠다. 연후에 미시적 접근을 통하여 그의 신비 경험들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구체적 이해를 알아보겠다.

이냐시오의 삶의 여정의 핵심 주제는 영광이다. 이 점은 자서전을 구술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몇몇 예수회 회원들은 종종 그에게 일생 동안 경험한 놀라운 은총들을 기록으로 남겨 주도록 요청하곤 했다. 그럴 때마다 그는 거부했다. 그런데 어느 날 카마라라는 한 제자가 심각한 고민을 이냐시오에게 털어놓는다. 그는 헛된 영광의 유혹이 자신을 괴롭히며, 그것과의 싸움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냐시오의 조언을 구한다. 그러나 카마라는 그의 고백이 이냐시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⁶¹⁾ 헛된 영광은 바로 이냐시오 자신을 가장 심각하게 괴롭혔던 유혹이었다. 카마라의 고백은 이냐시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경험을 구술할 결심을 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이냐시오로 하여금 자서전을 구술하게끔 만든 것은 다른 동료와 제자들의 존경과 감탄이 아니라 카마라의 심각한 영적 싸움이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자서전을 구술한 목적은 헛된 영광과 싸웠던 자신의 예를 통하여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헛된 영광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가 되도록 돕는 데 있었다. 이러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 이냐시오의 자서전은 헛된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르는 영광을 핵심 축으로 한 궤적을 따라 전

Ignacio Tellechea Idigoras, *Ignatius of Loyola : the Pilgrim Saint*, trans. Julius Michael Buckley (Chicago : Loyola University Press, 1994), 17.

개된다. 따라서 그의 삶의 여정은 영적 성숙의 단계에 따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째 헛된 영광의 추구, 둘째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내면의 갈등, 셋째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이다.

(1) 헛된 영광의 추구

이냐시오의 젊은 시절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 "26세가 되기까지 그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빠져 있던 자였고, 검을 사용함에 특별한 즐거움을 느꼈고, 영광을 얻고자 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힌 자였다."⁶²⁾ 그는 기사도의 정신, 특별히 궁전의 기사도에 관한 환상에 젖어들곤 했다. 기사로서 세상의 명성을 얻고 싶다는 헛된 영광에 대한 갈망이 젊은 이냐시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팜플로나의 전투에 관한 이야기는 그가 얼마나 세상 영광에 대한 강한 갈망을 지녔었나를 여실히 보여 준다. 프랑스 군대의 팜플로나 성에 대한 공격에 직면하여, 이냐시오는 기사도 정신에 따라 퇴각은 수치라고 판단한다. 그는 타인의 평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에 무리한 영웅적 모험을 감행하여 헛된 영광의 먹이가 된다. 그는 죽더라도 기사답게 성을 방어하다가 죽자고 주위 동료들을 설득하여 성에 남는다. 후일 그는 이것이 잘못된 결정이었고, 팜플로나는 방어되어질 수 없었던 것이라고 고백한다. 이 경험을 통해 이냐시오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따른 좋은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갖는 것"⁶³⁾은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일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팜플로나 전투에서 대포알의 파편을 다리에 맞고 부상하여 프랑스 군의 포로가 된다.⁶⁴⁾

62. Ignatius of Loyola, *St. Ignatius' Own Story (=Auto)*, trans. William J. Young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56), [1].

63. Ignatius of Loyola, *The Spiritual Exercises*, trans. Louis J. Puhl (Chicago : Loyola University Press, 1951), [9].

64. *Auto* [1].

(2)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의 내적 갈등

① 회심의 과정 중에 겪은 헛된 영광과의 투쟁

이나시오의 회심은 팜플로나의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연유로 집에 돌아와 병상에 누워 있는 기간에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은 시계추처럼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를 오가는 것을 반복하게 된다. 그의 회심은 병상에서 두 권의 종교적인 책을 읽음으로 시작된다. 그는 낭만적 기사도의 소설을 읽기 원했으나 마침 그의 집에는 오직 「성인열전」(*Flos Sanctorum*)과 「그리스도의 생애」(*Vita Christi*)라는 두 권의 책밖에 없었다. 그는 이 두 책을 통해, 특별히 종교적 기사도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성인열전」을 통해 지금까지 꿈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영광의 세계를 소개받는다. 이 책의 서문은 성인들을 ‘한 중앙에서 계신 영원한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의 깃발을 따르는 하나님의 기사들’로 묘사하고 있다.⁶⁵⁾ ‘하나님의 기사들’이라는 개념이 그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세상 왕이나 연모하는 여성을 위한 기사로서의 봉사를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참되고 영원한 영광은 오직 ‘영원한 왕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애’ 안에, 특별히 ‘주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거룩하고 성스러운 고난과 죽음’ 안에, 그리고 주님의 기사들인 성인들의 삶과 고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⁶⁶⁾ 따라서 세상 기사로서의 헌신을 통해 헛된 영광을 얻고자

65. Joseph Guibert, *The Jesuits Their Spiritual Doctrine and Practice: A Historical Study*, trans. William J. Young (Chicago: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64), 26; Joseph N. Tylenda, “The Books that Led Ignatius to God,” *Review for Religious* 57(1998), 290. 두 책이 이나시오의 회심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특별히 그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다음을 보라. Gilles Cusson, *Biblical Theology and the Spiritual Exercises*, trans. Mary Angela Roduit and George E. Ganss (St. Louis: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 1988), 8-22.

했던 열망은 점차 그리스도의 탁월한 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싶은 열망으로 바뀌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명예와 영광을 원하는 열망은 여전히 그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그의 마음은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전쟁터가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는 헛된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생각이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자신의 마음의 움직임들을 끊임없이 성찰한다. 이를 통해서 그는 서로 다른 영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야기하는 움직임들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식별을 통하여 과거의 삶과 단절을 하게 된다.⁶⁷⁾

② 회심 후 계속되는 헛된 영광에 대한 내적 투쟁

이제 헛된 영광의 유혹은 더욱 교묘한 형태로 이나시오를 괴롭힌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면을 쓴 헛된 영광과의 더욱 치열한 싸움을 그는 피할 수가 없었다. 회심 이후 그는 다른 성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했던 것처럼 행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내면보다는 외적 행위와 고행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인다.⁶⁸⁾ 비록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했으나, 그의 목적은 여전히 외적인 위대한 일, 다른 사람들의 시선, 타인의 찬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헛된 영광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있었다. 길에서 무어인과 조우한 이야기는 그가 당시의 사회 가치로부터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스페인의 사회 관습으로 보면 순수하지 못한 피를 지닌 무어인이 순

66. *Flos Sanctorum*, fol. A, 2 v; 다음에서 재인용함. Pedro Leturia, *Ífigo De Loyola*, trans. Aloysius J. Owen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65), 94.

67. *Auto* [10]; J. Ignacio Tellechea Idigoras, *Ignatius of Loyola: the Pilgrim Saint*, 137, 127-9.

68. *Auto* [14].

결한 피의 근원인 마리아를 모욕한 경우에, 그는 반드시 마리아의 명예를 위해 그 무어인을 죽였어야 했다. 마리아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스페인의 기사도에서 보면 수치이다. 그는 즉각적으로 싸우려 하는 대신 그 결정을 노새에게 맡긴다.⁶⁹⁾ 이 점에서 그는 더 이상 세상 명예와 영광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냐시오의 헛된 영광과의 투쟁은 몬세라트에서도 계속된다. 그는 거기서 자신의 노새와 검과 단검을 수도원에 무명으로 기증한다. 자기의 이름이 밝혀질까 염려하여 새벽에 그곳을 떠난다. 타인이 자신을 알아보고 존경을 표할까 염려하여, 바르셀로나로 가는 대로 대신 우회하는 작은 길을 택한다. 이런 연유로 그는 만리사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⁷⁰⁾ 그곳에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즉, 헛된 영광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만리사로 인도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 그가 싸우기 시작한 헛된 영광은 금욕훈련을 가장한 것이었다.⁷¹⁾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피하기 위해 그는 구걸과 채식을 하고 머리와 손톱을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 둬으로써 자신의 몸

69. 이냐시오는 회심 후 예루살렘 순례길에 나선다. “길을 가던 중 그는 노새를 탄 무어인을 만난다. 그들은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고, 대화의 주제는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 가게 되었다. 무어인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임신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그녀가 ‘예수’를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동정녀로 남아 있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다. …… 그리고 무어인은 길을 재촉하여 떠났고 곧바로 그의 시야에서 벗어났다. 무어인이 사라지자 그는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이 생각들은 그의 영혼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무어인이 마리아에 대해 그와 같은 말을 하도록 자신이 허락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 여겨지자, 그는 무어인에 대해 분노를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명예를 방어해야만 한다고 느꼈다. 무어인을 쫓아가서 그의 모욕의 대가로 검의 맛을 보여 주어야겠다는 열망이 떠올랐다. 복수의 열망과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간의 싸움이 한참 동안 그의 내면에서 진행되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Auto* [15].

70. *Auto* [18].

71. Leturia, *Ítigo De Loyola*, 153.

을 돌보지 않았다. 즉, 의도적으로 명예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도적 자기 멸시는 그가 결코 헛된 영광에서 해방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과도한 자기 관리와 마찬가지로 과도한 관리부실 또한 헛된 영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식이기 때문이다.⁷²⁾

(3)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삶

만리사에서 하나님은 신비적 경험을 통하여 이냐시오를 가르치신다. 신비적 경험들을 통하여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를 경험한다.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하강운동을 경험한다.⁷³⁾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경험은 그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은 뒤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그의 헛된 영광과의 싸움에서 중요한 전환점은 신비적 환상들과 위대한 조명(illumination)을 경험한 후에 찾아온다. 그는 십자가 앞에서 많은 눈을 가진 형체의 이미지가 악마라는 것을 분명하게 식별한다. 때혹적으로 다가와서 그를 괴롭혔던 그 물체는 그의 구원을 가장 위협했던 헛된 영광을 상징한다. 그 물체는 이냐시오 자신 안에 깊숙이 감추어진 그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다.⁷⁴⁾ 그 물체의 참된 정체는 파악된 것은 십자가의 빛 아래서이다. 이 점에서 그에겐 십자가는 위대한 깨달음의 근원이다. 헛된 영광이란 죄악의 해독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

72. Marjorie O'Rourke Boyle, *Loyola's Act: The Rhetoric of the Self*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71-3.

73. François Courel, "St. Ignatius and the Greater Glory of God," in *Finding God in All Things*, trans. William J. Young (Chicago: Henry Regnery, 1958), 26.

74. Idigoras, 190; Boyle, 111, 121, 129; Cusson, *Biblical Theology and the Spiritual Exercises*, 24.

다. 십자가와 비교될 때 많은 눈을 가진 물체는 영광을 잃고, 그 아름다움은 추함으로 변하게 된다. 십자가는 헛된 영광이 궁극적으로 죽는 곳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빛나는 곳이다. 이 점에서 십자가의 길은 참된 영광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헛된 영광을 구별해 내는 참된 방법론을 제공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은 위대한 외적 행위들에 있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신 그리스도를 고난 가운데서 따르며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후에 그는 이 깨달음을 영신수련의 「왕국 묵상」에 반영한다.

만리사의 신비적 경험들을 통해 이냐시오는 새로운 삶의 길을 보게 된다. 그의 관심은 더 이상 위대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후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비적 경험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이해를 형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도적 인물로 변화시켰다.⁷⁵⁾

회심 후 약 이 년이 지난 무렵에 이냐시오는 헛된 영광의 치료제를 발견한다. 그 치료제는 “모든 문제를 수시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 그것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⁷⁶⁾이다. 즉, 그 치료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마음과 삶을 재방향설정하는 것이다. 이 치료제를 실행함으로써 그는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방으로 인해 더 이상 영혼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 결국 그는 사도적 활동을 통하여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인물로 변화된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이냐시오의 삶은 사도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었다. 첫째, 그는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75. *Auto* [36].

76. Luis Conzález de Cámara, “Author’s Preface,” [1], in *Auto*.

10년 이상을 공부에 헌신한다. 공부의 유일한 목적은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잘 준비되기 위함이었다. 그는 공부와 병행하여 영성수련을 지도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르침으로써 다른 영혼들을 돕는 활동을 한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여겼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바보가 된다. 그에 의하면 “세상에서 현명하고 분별 있다고 존중하는 것”⁷⁷⁾을 거부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에 참여하지 않고서 주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셋째, 예수회에 유대인을 받아들인 것은 그의 관심이 ‘피의 순결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⁷⁸⁾ 마지막으로, 그의 영혼이 헛된 영광에 관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헛된 영광과의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싸움은 그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그는 자신의 양심을 성찰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다.⁷⁹⁾

결론적으로 이냐시오는 영광의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세상적인 명에

77. Ignatius of Loyola, *The Spiritual Exercises*, trans. Louis J. Phul (Chicago: Loyola University Press, 1951), [167]; Peter-Hans Kolvenbach, “Fools for Christ’s Sake” (Rome: Centrum Ignatiaum Spiritualitatis, 1989), 28.

78. 1492년 스페인에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선택 앞에 놓이게 된다. 그것은 개종, 추방, 죽음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이 가톨릭으로 개종한다. 그러나 스페인 가톨릭은 그들의 개종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래서 새롭게 개종한 유대인들과 무어인들을 ‘신개종자’라고 불렀다. 이러한 신개종자들로 인해 스페인에서는 피의 혈통이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 유대인과 무어인들의 피가 섞이지 않은 가톨릭 신자들은 스스로에 대해 우월감과 자긍심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직이나 교회의 직에서 신개종자들을 차별하는 법이 생겨난다. 그것을 ‘피의 순결함’이라고 부른다. 이냐시오에 의해 예수회에 받아들여진 유대인들은 ‘라이네즈’(Lainez)와 ‘보르기아’(Borgia)이다. 라이네즈는 확실하며, 보르기아는 유대인이었다고 추정된다. 이 둘 모두는 이냐시오를 계승하여 예수회의 수장이 된다. 이냐시오의 유대인들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는 다음을 보라. Keith Langstaff, “The Third Week of Ignatius Loyola’s *Spiritual Exercises* and Anti-Jewish Overtones” (Th. D. diss., Toronto School of Theology, 1995).

79. Guibert, *The Jesuits*, 66-7.

와 영광을, 그 후엔 외적인 금욕적 행동을 통해 헛된 영광을, 그리고 마침내는 고난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도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나시오의 전생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2) 신비 경험을 통해 본 하나님의 영광 이해

지금까지 생의 여정을 통해서 이나시오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일반적 이해를 배경으로, 이제 만리사에서 신비 경험들을 살펴보겠다. 이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의 구체적 이해를 알아보겠다.

(1) 만리사에서 신비 경험

이나시오는 만리사에서 다섯 가지 신비 경험들을 한다. 이것들은 크게 두 주제로 나누어진다. 첫째 주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이다.⁸⁰⁾ 이것이 그의 영성의 핵심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그의 영혼은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장엄함, 선하심, 그리고 사랑에 압도당한다.⁸¹⁾ 다시 말하면, 그는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보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감싸이게 된다. 이 경험으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성스런 위엄'(the Divine Majesty) 혹은 '지고

80. "어느날…… 그의 이해가 고양되기 시작하여 그 결과로 그는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세 개의 음악적 조(keys)의 형태로 보게 된다. …… 그는 저녁식사 때까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식사 후에도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 가장 거룩하신 삼위일체에 대해 말하는 것을 그칠 수가 없었다. …… 그 영향은 그의 전 생애에 걸쳐 남아서 그로 하여금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큰 영적 감흥을 경험하게끔 하였다." *Auto* [28].

81. Jean Danielou, *The Ignatian Vision of the Universe and of Man*(Jersey City : Program to Adapt the Spiritual Exercises, 1972), 358 ; John E. Dister, "The Core Experience of the Spiritual Exercises and Ignatian Spirituality Today," in *A New Introduction to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Collegeville : The Liturgical Press, 1993), 108.

선'(the Supreme Goodness)으로 칭하기를 선호하게 된다.⁸²⁾

성삼위일체에 대한 신비 경험을 통하여 이나시오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깨닫게 된다. 먼저 그는 삼위 자체의 내적 관계와 일치에 대한 신비를 깨닫게 된다. 다음으로 세계의 창조와 구원에 관한 성삼위일체의 사역의 신비에 대해서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의 영광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강하여 만물 가운데 거하고, 만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참된 존재가 되는 것"⁸³⁾을 이해하게 된다. 즉, 그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느끼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세상과 구원의 중심으로서의 그리스도이다. 이나시오의 또다른 신비 경험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에 관한 것이다.⁸⁴⁾ 이 신비 경험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창조자와 주(Lord)로 이해했다. 그에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창조자'이다.⁸⁵⁾ 즉, 그리스도 또한 만물 안에 임재하며, 그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러한 그의 그리스도 중심적 신비주의는 다음의 두 환상을 통해 깊어진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성만찬의 임재에 관한 것이고 또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에 관한 것이다. 전자의 환상에서 성만찬에 임재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다.⁸⁶⁾ 그리스도의 만물 가운데 임재함이 이

82. Augustine G. Ellard, "Ignatian Spirituality," *Review for Religious* 50 (1991) : 8.

83. Louis Dupre, "Ignatian Humanism and Its Mystical Origins," *Communio* 18(1991) : 177.

84. "한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방식이 엄청난 영적 기쁨을 동반하며 그의 이해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다. 그는 아마도 하얀 어떤 것을 보았던 것 같다. 그 하얀 것에서 광선이 나왔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빛을 만드셨다." *Auto* [29].

85. Ignatius of Loyola, *The Spiritual Exercises*, [53].

86. "어느 날 앞서 언급한 수도원의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고 있을 때, 성체를 들어

성만찬의 환상 안에서 구체성과 역사성을 획득한다. 성만찬의 환상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에 관한 환상은 그리스도의 편제가 세상의 구원과 관련하여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혀 준다. 그가 본 환상은 '하얀 몸', 즉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이었다. 그리스도의 영화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신성과 인성의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한다. 이 환상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궁극적인 유일한 중보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유일한 중보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창조자이며 주님이고 동시에 우리의 중보자이다. 따라서 이냐시오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모든 직접적인 만남은 하나님의 인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다.⁸⁷⁾

(2) 칼도너 강가 언덕에서의 신비 경험

칼도너 강가 언덕에서의 신비 경험은 신앙의 신비들을 유기적으로 체계화시켜 주었다. 단편적으로 이해되었던 신앙의 신비들이 이 신비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혹은 통합적으로 이해되게 된다. 칼도너의 경험은 환상이 아니라 신비적 계몽 혹은 통찰이다.

그러면 칼도너의 신비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영적 성숙의 연속성

올리는 순간에 그는 내적 눈으로 하얀 광선 같은 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비록 이 경험 후 상당히 오랫동안 이 경험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분명히 본 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께서 가장 거룩한 성례전 안에 임재하시는가였다. 기도하는 중에 종종 그리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내적 눈으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보았다. 그에게 나타난 형태는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하얀 몸과 같은 것이었다." *Auto* [29].

87. Karl Rahner, "The Eternal Significance of the Humanity of Jesus for Our Relationship with God," in *Theological Investigation III*, trans. Boniface Kruger, etc. (Baltimore: Helicon Press, 1967), 35-46.

이란 관점에서 보면, 만리사의 신비 경험들은 칼도너 신비 경험의 배경이 된다. 칼도너의 신비 경험이 로올라에서부터 만리사까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 교육의 절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칼도너의 경험과 그 앞의 경험들 사이에는 내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실로스(Silos)는 칼도너의 경험은 모든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보도록 만들어 주는 근본적인 통찰이라고 지적한다.⁸⁸⁾ 이 근본적 통찰은 두 가지를 그 핵심 요소로 포함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운동과 영들을 식별하는 원리가 그것들이다. 근본적 통찰이 제공한 통합적 시야를 통해, 이냐시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 만물 가운데 거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라는 단편적 경험들을 통합하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 통합의 해석학적 열쇠는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운동이다. 이 순환운동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와 운동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운동은 세상의 구원을 위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만물 가운데 거하는 것, 그들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애써 일하는 것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 해석학적 열쇠를 통하여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피조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지를 알게 된다. 모든 피조물들이 상승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다.⁸⁹⁾

또한 칼도너의 계몽을 통하여 이냐시오는 영들을 분별하는 원리를 발견한다. 그는 로올라에서 다른 영들에 의해 야기된 사전 원인이 있는 영적 위안(consolation with previous causes)과 영적 황량(desolation)을 경험한다. 그러나 많은 눈을 가진 물체는 식별할 수 없었다. 만리사

88. Leonardo R. Silos, "Cardoner in the Life of Saint Ignatius of Loyola," *Archivum Historicum S. I.* 33(1964): 9-12.

89. Hugo Rahner, *Ignatius the Theologian*, trans. Michael Barry (New York: Herder and Herder, 1968), 11-2.

에서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경험은 그에게 사전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을 맛보게 한다. 사전 원인이 없는 영적 위안은 모든 다른 영적 위안들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그는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로올라에서 만리사에 이르는 모든 경험들이 칼도너의 계몽을 통해 체계화되고 통합되어 영들을 식별하는 원리를 창출하게 된다. 칼도너의 경험을 언급한 후 곧바로 악마의 환상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이냐시오 스스로 영적 식별이 칼도너의 계몽의 중심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다.⁹⁰⁾ 이 영적 식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의 사도적 활동의 방법론이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거하여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식별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행동은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계속된 부르심과 초대이다. 우리는 지금 일하시며 고난받으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미션을 완성하도록 초대받고 있다.⁹¹⁾

결론적으로 칼도너의 경험은 기독교 신앙의 진리에 대한 해석학적 열쇠를 제공했고, 동시에 기도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 가운데서, 특별히 실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따를 수 있는 방법론을 제공했다. 즉,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

원계획에 대한 이해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한 것이다. 이로써 이냐시오는 관상적 삶이나 활동적 삶의 영역 모두에서 탁월성을 지닌 사도적 활동의 인물로 변화하게 되었다.⁹²⁾

(3) 신비 경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

하나님과의 연합은 이냐시오의 영안을 열어 모든 사물을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 휴고 라너는 이것을 '위로부터'라고 표현한다.⁹³⁾ 위로부터 보면 만물은 투명해진다. 투명해진 만물은 자신들의 존재의 실재를 드러낸다. 그 존재의 실재는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오직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위로부터'의 신비 경험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 영광의 하강운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에게로의 하강운동 안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위로부터'의 경험을 가진 자만이 '아래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이냐시오에 의하면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모든 것 안에서 그리고 행동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의 근본적 토대가 된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만물 안에 거하여 그들을 근원인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한다.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은 우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인간들을 협력자로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

90. "그는 근처에 있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거기에서 수없이 자신에게 나타났지만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환상, 즉 많은 눈을 지닌 매우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했던 것이 그에게 다시 나타났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분명하게 그 물체가 항상 지녔던 아름다운 색상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고, 그가 악마라는 것을 마음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다." *Auto* [31].

91. Walter L. Farrell, "The Background of the Spiritual Exercises in the Life of St. Ignatius of Loyola," in John E. Dister, 35.

92. Louis Lallemant, *The Spiritual Doctrine of Father Louis Lallemant*, ed. Alan G. McDougall(Westminster : Newman Book, 1946), 51.

93. Hugo Rahner, *Ignatius the Theologian*, 3-5.

조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현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⁹⁴⁾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의 수납자나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그릇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피조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협력자이다.⁹⁵⁾ 하나님께서는 협력자인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적 그리고 초자연적 재능 모두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이 점에서 우리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온전히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응답할 수 있겠는가? 이나시오에 의하면 이 질문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로서 하나님 영광의 순환운동의 한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리스도는 창조자, 주님, 그리고 중보자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을 일으켜 거룩한 근원으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육체 안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만물이 변화되는 것”⁹⁶⁾이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미션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려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미션에 참여해야만 한다. 만물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해 이러한 하강운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화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상승운동은 그리스도의 삶의 특징을 형성한 하강운동의 제한을 받아야만 한다. 그리스도는 개선하는 영웅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다. 십

94. Ibid., 28.

95. Jules J. Toner, *Discerning God's Will: Ignatius of Loyola's Teaching on Christian Decision Making*(St. Louis: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91), 17.

96. Ibid., 15; 강조는 필자의 것.

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특별한 장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을 본받으면서, 고난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으로”⁹⁷⁾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협력하는 데에 존재한다.

그리스도 미션의 참여는 종말에 온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즉,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영화롭게 되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안에서이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함을 위해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는 데서 드러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구원과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⁹⁸⁾

이제 이나시오의 모토인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Ad Majorem Dei Gloriam=AMDG)의 의미를 살펴보자. 이 모토의 강조점은 ‘영광’(gloriam)에 있지 않고 ‘보다 큰’(majorem)에 있다. 비록 이 모토에 대한 이나시오의 설명은 없지만, 그 의미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지금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불완전하다는 것이다.⁹⁹⁾ 종말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있는 영광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명은 항상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3:18에서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we,,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라고 언급한 것의 의미와 동일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더욱더 성화되어 가

97. Dupre, “Ignatian Humanism and Its Mystical Origins,” 178.

98. Toner, 15-17.

99. Ibid., 17.

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는 것이 바로 AMDG의 의미이다. 17세기 영적 거장 중의 한 사람인 예수회 회원 탈레몽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했다. 그는 AMDG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완전과 거룩의 영역에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목표에 그 어떠한 한계도 설정하지 말아야만 한다. 그리고 절대로 다음처럼 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제 충분해, 나는 만족해, 나는 더 이상 원치 않아.” 왜냐하면 우리의 소명에 대한 책임의식으로 우리는 사도적 삶의 완전함과 높은 미덕을 열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¹⁰⁰⁾

둘째, AMDG는 선택을 하는 원리이다.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사역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항상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한다는 것은 모든 행동 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견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⁰¹⁾ AMDG는 서로 다른 선택의 대상들을 비교하여 선택하는 원리이다. 비록 모든 대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과 더욱 일치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 AMDG의 의미이다.

셋째, AMDG는 단순히 우리의 외적 행동의 기준만은 아니다. 외적 행동을 선택하는 내적 경향성이 되어야만 한다. 월터 영은 AMDG가 우리의 외적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적 영혼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AMDG’는 선택의 순간에, 우리가 결심하는 순간에, 우리의 의식 구조 안에 있는 위기와 관련되어 있다. 그 위기는 굉장히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외적 행동뿐 아니라 심지어 내적 행동보다 선행한다. 그 위기 안에서 우리의 의지는 작동한다.¹⁰²⁾

내적 경향성으로서의 AMDG는 또한 “모든 사도적 활동이 배태되는 영적 환경”¹⁰³⁾이 된다. 이나시오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과 나의 영혼의 구원을 더하기 위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한다.¹⁰⁴⁾ 그는 이러한 준비되어 있음이 우리의 내적 경향성이 되어야만 한다고 조언한다.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적 경향성은 “하나님은 항상 더욱 크시다.”(God is always greater)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항상 더욱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안에서 구체화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자체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칼 라너의 정확한 설명과 같이, AMDG가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AMDG’는 우리의 행동 안에서 실제로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될 수 있었을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 끊임없이 평가하려는 노력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에 준비되어 있고 열려 있을 수 있게 된다. 그럼으로 우리는 삶의 또다른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또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방식으로 획득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된다.¹⁰⁵⁾

102. Walter J. Ong, “A. M. D. G.: Dedication or Directive?,” *Review for Religious* 11(1952): 259.

103. Courel, “St. Ignatius and the Greater Glory of God,” 40.

104. Ignatius of Loyola, *The Spiritual Exercises*, [179].

105. Karl Rahner, “Being Open to God as Ever Greater,” in *Theological Investigation* vol. VII, trans. David Bourke(London: Darton, Longman & Todd, 1971), 46.

100. Louis Lallemant, *The Spiritual Doctrine of Father Louis Lallemant*, 50.

101. Josef Stierli, “Ignatian Prayer: Seeking God in All Things,” in *Ignatius of Loyola His Personality and Spiritual Heritage 1556-1956*, ed., Friedrich Wulf(St. Louis: I. J. S., 1977), 150-56.

즉, AMDG는 항상 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그것을 향해 열려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만리사의 신비 경험과 칼도너의 계몽을 통해서 이냐시오는 온 우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 영광의 순환운동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론, 즉 영들을 식별하는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는 이 운동의 중심에서 있고, 우리를 자신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즉,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한 만물의 변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위하여 혹은 만물을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선교에 참여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고난받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며 강화될 수 있다.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AMDG는 성화에서의 우리의 끊임없는 성숙과 하나님 나라에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 선택의 원리, 그리고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 있는 내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4. 유사점과 차이점들

지금까지 칼뱅과 이냐시오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를 각각 알아보았다. 이미 양자 사이에 놀랄 정도로 유사점이 많다는 것을 감지하였을 것이다. 우선 그 유사점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 보겠다.

첫째, 양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라는 사실에 일치한다. 칼뱅과 이냐시오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서 드러난다. 구원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를 구원자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라는 데 그들은 의견을 같이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것에 그들은 동의한다.

둘째, 두 사람 모두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칼뱅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의 '휘황찬란한 극장'으로 언급한다. 이냐시오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장엄함으로 충전되어 있다고 표현한다. 피조물의 즉각적인 목적은 인간이 구원을 얻도록 돕는 것이고,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데에 양자는 생각을 같이한다.

셋째,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데서 드러난다고 양자는 생각한다. 칼뱅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의 변화는 성화이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면 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욱더 우리를 통하여 빛나게 된다. 비록 칼뱅이 '보다 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바로 이 점에서 이냐시오의 '더욱 큰'(magis)이라는 개념과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냐시오의 AMDG는 성화에서의 우리의 끊임없는 성숙과 하나님 나라로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칼뱅에게도 마찬가지로 성화는 일생 동안 계속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종말의 때에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이다.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야만 한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칼뱅은 생각한다.

넷째, 칼뱅의 자기 부인의 개념은 이냐시오의 초연함(indifference)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냐시오는 초연함을 우리의 의지의 초점이 오직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에만 맞추어져 있는 내적 경향성으로 이해한다. 칼뱅의 자기 부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내적 경향성을 의미한다.

다섯째, 양자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고 생각한다. 고난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도 서로 동의한다. 칼뱅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누어 받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표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냐시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고 믿는다.

이제 양자 사이에 발견된 유사점들을 배경으로 하여, 양자 사이의 차이점을 알아보겠다. 발견된 차이점들이 서로 대립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보완적이거나 양립 가능한 것이라면, 그것들은 서로의 전통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필자 자신이 개혁신교회 전통에서 있는 연유로 그리고 지면의 한계 때문에, 이냐시오의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 개혁신교회 전통이 더욱 풍요롭게 되도록 도울 수 있는 점만을 검토해 보겠다. 첫째, 두드러진 차이점은 이냐시오의 AMDG에서 발견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MDG는 크게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의미는 칼뱅에게서도 발견된다. 마지막 두 가지, 즉 선택의 원리 혹은 영 식별의 원리와 내적 경향성으로서의 AMDG에 관해서 칼뱅은 체계화된 법칙을 발전시키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개혁신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차이점은 그들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양자는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언급하며, 그 연합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믿음을 통하여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하여 언급할 때, 그들은 차이를 보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냐시오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사도적 활동을 통합시켰다. 이 통합의 열매는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finding God in all things)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의 순환운동이 그러한 통합의 토대이다. 삼위일체 하나

님의 영광의 순환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도적 활동은 단순한 활동 자체만이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다. 이냐시오에겐 우리 영혼의 중심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과 세상의 한복판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은 분리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전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후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연합 또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연합의 이중적 형태이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며 고난받는 데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이냐시오는 세상 한복판에서의 사도적 활동의 신비적 측면(mystical dimension)을 우리에게 열어 보인 것이다.

칼뱅의 영성도 세상을 긍정하는 혹은 세상을 변혁하는 영성이다. 칼뱅은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폴 정은 옳다. "칼뱅의 영성은 하나님 말씀의 빛의 조명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칼뱅의 윤리는 '문화의 변혁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좋은 예가 된다."¹⁰⁶ 이냐시오와 마찬가지로 칼뱅에게 있어서도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활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분리될 수 없다. 탐부렐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반드시 우리들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한 결과를 창출해야만 한다는 것이 칼뱅의 분명한 생각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한다.¹⁰⁷ 또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표식이 된다. 그리고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짊, 다가올 생을 묵상함으로 요약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의 외적 실천이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이웃 안에

106. Paul Chung, *Spirituality and Social Ethics in John Calvin: A Pneumatological Perspective*(Lanham: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154.

107. Dennis E. Tamburello, *Union with Christ: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1994), 98.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라고 칼뱅은 권면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볼 때, 칼뱅 안에도 세상 안에서의 사도적 실천의 신비적 측면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개념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전통에서는 세상 한복판에서의 사도적 실천은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차원으로 언급되어 온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개혁교회 전통에 사도적 실천의 신비적 측면이 보완된다면, 사역자들의 영적 탈진의 문제는 많이 해결되리라 본다.

셋째, 양자가 바울을 많이 따르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나, 바울의 어떤 모습에 강조점을 두어 따르고 있는가라는 점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냐시오의 제자인 나달이 바울이 예수회 사역의 모델이라고 언급한 것에 기초하여, 오멜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루터는 바울로부터 신학적인 혹은 교리적인 원리들을 추출했다. 이냐시오와 그 동료들은 바울 안에서 사역의 모델 그리고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하나됨의 모델을 발견했다.”¹⁰⁸⁾ 여기서 루터가 바울로부터 신학적인 교리를 추출했다는 것이 루터에게는 실천적 혹은 목회적 관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루터의 초점은 바울의 교리적 가르침에 보다 더 있었고, 이냐시오의 초점은 바울의 선교적 열심과 사역에 보다 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견해는 칼뱅과 이냐시오 사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칼뱅의 관심은 바울의 교리적 가르침에 보다 많이 있었고, 이냐시오의 관심은 바울의 선교적 열심에 보다 많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양자의 관심을 통합하면 바울의 전체 모습이 드러난다.

넷째, 또다른 차이점은 칼뱅과 이냐시오가 경건 혹은 영성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발견된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칼뱅은 하나님의 영광이 경건의 실천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경건의 실천을 돕기

위해, 칼뱅은 교리적인 접근법을 채택한다. 이것이 바로 그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이유이기도 하다. 리차드는 칼뱅이 왜 교리적 접근을 채택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칼뱅은…… 지식과 영성을 통합했다. …… 칼뱅은 지식과 교리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신비신학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건이 교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 영적인 진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리는 경건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 동시에 “교리가 없는 곳에는 경건의 함양도 없다.”¹⁰⁹⁾

반면 이냐시오는 참된 영성 혹은 경건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폭넓게 가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험적이고 영성 형성적인 접근법을 채택한다. 영성수련의 저술이 이냐시오의 그러한 접근법의 한 예이다. 이냐시오와 초기 예수회 회원들은 다른 신자들이 참된 경건을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장치들을 발전시켰다. 영성수련과 영성지도가 그러한 장치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다. 비록 피정과 영성지도가 이냐시오와 초기 예수회 회원들의 창작물은 아니지만, 그들은 피정과 영성지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옷을 입혔다. 오멜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피정지도를 요청받은 예수회 회원은 자신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는 이미 만들어진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계획을 따라가면 되었다. 이로 인해 기독교 영성에 있어 하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 정기적인 피정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행하는 경건의 형태 가운데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¹¹⁰⁾

108. John O'Malley, "Early Jesuit Spirituality: Spain and Italy," in *Christian Spirituality: Post-Reformation and Modern*, ed., Louis Dupre and Don E. Saliersin(New York: Crossroad, 1989), 19.

109. Richard,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129.

110. John O'Malley, "Early Jesuit Spirituality: Spain and Italy," 22-23.

칼뱅의 초점은 무엇이 참된 경건인가에 대해 보다 더 맞추어졌고, 이냐시오의 초점은 어떻게 신자들이 영적 식별의 마음을 개발하여 경건의 실천을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에 보다 더 맞추어졌다. 이 점에서 이냐시오의 경험적이고 영성 형성적 접근방법은 어떻게 경건의 성숙을 이룩할 수 있겠는가의 영역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칼뱅의 교리적 접근을 좀더 풍요롭게 해 줄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이냐시오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개념이 영들을 식별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칼뱅과 이냐시오 모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칼뱅은 영적 식별을 위한 특별한 지침들을 이론화하지 않았다. 이냐시오는 개인의 구체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것은 단지 윤리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축소될 수 없다고 여긴다. 각 개인의 구체적 상황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고유하며, 그 하나님의 뜻은 식별될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한 것인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냐시오는 '영들을 식별하는 원리들'을 제시함으로 응답한다. 이 원리들은 아마도 체계화된 형태로 제시된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최초의 방법일 것이다. 이 영적 식별법 또한 개혁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신자들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식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우리는 16세기 두 영적 거장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오늘날의 영적 지형도를 생각해 보아도 이 두 영적 거장이 미친 영향력의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전혀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으리라

여겨진 적대 진영의 두 대표에게서 놀랄 정도로 많은 유사점을 발견하기도 했다. 물론 많은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데이빗 트레이시(David Tracy)가 "유추적 상상력"(analogical imagination)¹¹¹이라고 언급한 개념이 의미하는 바대로 이러한 차이점들은 대립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possibility)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 서로가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각자의 영성의 뿌리와 줄기들을 유지하면서 그 가지들과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데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본 고에서 시도한 칼뱅과 이냐시오 사이의 대화가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개혁신교회와 로마 가톨릭 사이의 에큐메니칼 대화를 촉진시키는 데 작은 밑거름이나마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문헌

1. 칼뱅에 관하여

Calvin, John, *Calvin's Selected Works*, Edited & Translated by Henry Beveridge. Vol. 3, *Psychopannychia*.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3.

_____. *The Piety of John Calvin*, Edited &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8.

_____. *Calvin: Commentaries*, Edited by Joseph Haroutunian.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58.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12 vols. Edited by David W. Torrance and Thomas F. Torrance.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59-1972.

111. David Tracy, *Plurality and Ambiguity: Hermeneutics, Religion, Hop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 20-21.

- _____. *Commentary upon the Epistle of Saint Paul to the Romans*. Edited by H. Beveridge. Edinburgh :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7.
- _____. *Commentary upon the Acts of the Apostles*. Edited by H. Beveridge. Edinburgh :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7.
- _____. *Calvin :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 Barth, Karl.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Geoffrey W. Bromiley. Grand Rapids : William B. Eerdmans, 1995.
- Battles, Ford Lewis, ed. & trans. *The Piety of John Calvin : An Anthology Illustrative of the Spirituality of the Reformer*. Grand Rapids : Bakers Book House, 1978.
- Bouwma, William J.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In *Christian Spirituality : High Middle Ages and Reformation*, ed. J. Raitt, 318-33. New York : Crossroad, 1987.
- Bouyer, Louis. *A History of Christian Spirituality Vol. III*. London : Burns & Oates, 1969.
- Butler, Diana. "God's visible glory : The Beauty of Nature in the Thought of John Calvin and Jonathan Edwards."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52(1990) : 13-26.
- Chung, Paul. *Spirituality and Social Ethics in John Calvin : A Pneumatological Perspective*. Lanham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0.
- Jones, Serene. *Calvin and the Rhetoric of Piety*.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1995.
- Kim, Jae Sung. "Unio Cum Christo :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n Calvin's Theology." Ph. D. diss.,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1998.
- Kuizenga, Henry. "Relation of God's Grace to His Glory in John Calvin." In *Reformation Studies : Essays for R. H. Bainton*,

- ed. Franklin H. Littell, 95-105. Richmond : John Knox Press, 1962.
- Lee, Sou-Young. "Calvin's Understanding of Pietas." In *Calvinus Religionis Vindex*, ed. E. Neuser, 225-239. Kirsville : Sixteenth Century Journal Publishers, 1977.
- Leith, John H. *John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Louisville : John Knox Press, 1989.
- Miles, Margaret R. "Theology, Anthropology, and the Human Body in Calvin's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Harvard Theological Review* 74 : 3(1981) : 303-23.
- Niesel, Wilhelm. *The Theology of Calvin*. Translated by Harold Knight.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56.
- Richard, Lucien Joseph. *The Spirituality of John Calvin*. Atlanta : John Knox, 1974.
- Rainbow, Jonathan H. "Double Grace : John Calvin's View of the Relationship of Justification and Sanctification." *Ex Auditu* 5 (1989) : 99-105.
- Schreiner, Susan E. *The Theater of His Glory*. Durham : Labyrinth Press, 1991.
- Tamburello, Dennis E. *Union with Christ : John Calvin and the Mysticism of St. Bernard*. Louisville : Westminster John Knox, 1994.
- Tavard, George H. *The Starting Point of Calvin's Theology*. Grand Rapids : WM. B. Eerdmans, 2000.
- Wendel, Francois. *Calvin : Origins and Development of His Religious Thought*. Translated by Philip Mairet. Grand Rapids : Bakers Book, 1997.

2. 이냐시오에 관하여

- Ignatius of Loyola,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Translated by Louis J. Puhl, Chicago : Loyola University Press, 1951.
- _____. *Ignatius of Loyola : The Spiritual Exercises and Selected Works*, Edited by George E. Ganss, New York : Paulist, 1991.
- _____. *St. Ignatius' Own Story : As Told to Luis Gonzalez de Camara with a Sampling of His Letters*, Translated by William J. Young, Chicago : Loyola University Press, 1956.
- Boyle, Marjorie O'Rourke, *Loyola's Acts : The Rhetoric of the Self*,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 Buckley, Michael, "The Structure of the Rules for the Discernment of Spirits," *The Way Supplement* 20(1973) : 19-37.
- Courel, Francois, "St. Ignatius and the Greater Glory of God," In *Finding God in All Things : Essays in Ignatian Spirituality Selected from Christus*, trans. William J. Young, 25-42, Chicago : Henry Regnery Company, 1958.
- Cusson, Gilles, *Biblical Theology and the Spiritual Exercises : A Method toward a Personal Experience of God as Accomplishing within Us His Plan of Salvation*, Translated by Mary Angela Roudit and George E. Ganss, S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88.
- Dalmases, Candido de, *Ignatius of Loyola, Founder of the Jesuit : His Life and Work*, Translated by Jerome Aixalá, St. Louis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85.
- Danielou, Jean, *The Ignatian Vision of the Universe and of Man*, Jersey City : Program to Adapt the Spiritual Exercises, 1972.
- Dister, John E., ed, *A New Introduction to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Collegeville : A Michael Glazier Press, 1993.
- Dupre, Louis, "Ignatian Humanism and Its Mystical Origins," *Communio* 18(1991) : 164-182.

- Fleming, David L., ed, *Notes o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of Loyola*, St Louis : Review for Religious, 1983.
- Guibert, Joseph de, *The Jesuits Their Spiritual Doctrine and Practice : A Historical Study*, Translated by William J. Young, Chicago : the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64.
- Haas, Adolf, "The Foundation of Ignatian Mysticism in Loyola and Manresa," *Centrum Ignatianum Spiritualitatis* 39-40(1982) : 149-196.
- Idigoras, J. Ignacio Tellechea, *Ignatius of Loyola the Pilgrim Saint*, Translated by Cornelius Michael Buckley, Chicago : Loyola University Press, 1994.
- Klovenbach, Peter-Hans, "The Passion According to St. Ignatius," & "Fools for Christ's Sake," *Centrum Ignatianum Spiritualitatis* : Rome, 1989.
- Lallemant, Louis, *The Spiritual Doctrine of Father Louis Lallemant*, Edited by Alan G. McDougall, Westminster : The Newman Book, 1946.
- Langstaff, Keith, "The Third Week of Ignatius Loyola's *Spiritual Exercises* and Anti-Jewish Overtones," Th. D. diss., Toronto School of Theology, 1995.
- Leturia, Pedro, *Inigo de Loyola*, Translated by Aloysius J. Owen, Chicago : Loyola University Press, 1965.
- O'Malley, John W, "Early Jesuit Spirituality : Spain and Italy," In *Christian Spirituality : Post-Reformation and Modern*, ed, Louis Dupre and Don E. Saliersin, 3-27, New York : Crossroad, 1989.
- Ong, Walter J, "A. M. D. G. : Dedication or Directive?" *Review for Religious* 11(1952) : 257-64.
- Rahner, Hugo, *The Spirituality of St. Ignatius Loyola : An Account of Its Historical Development*, Translated by Francis John Smith, Westminster : the Newman Press, 1953.

- _____. *Ignatius the Theologian*. Translated by Michael Barry. New York : Herder and Herder, 1968.
- Rahner, Karl, "The Eternal Significance of the Humanity of Jesus for Our Relationship with God," In *Theological Investigations*, Vol. III, trans. Karl-H and Boniface Kruger, 35-46, Baltimore : Helicon, 1967.
- _____. "The Ignatian Mysticism of Joy in the World." In *Theological Investigations*, Vol. III, trans. Karl-H and Boniface Kruger, 277-93, Baltimore : Helicon, 1967.
- _____. "Being Open to God as Ever Greater." In *Theological Investigations* Vol. VII, Translated by David Bourke, London : Darton, Longman & Todd, 1971, 25-46.
- Silos, Leonardo R. "Commentarii Historici : Cardoner in the Life of Saint Ignatius of Loyola." *Archivum Historicum* 33(1964) : 3-41.
- Stierli, Josef. "Ignatian Prayer : Seeking God in All Things." In *Finding God in All Things : Essays in Ignatian Spirituality Selected from Christus*, trans. William J. Young, 135-63. Chicago : Henry Regnery Company, 1958.
- Toner, Jules J. *Discerning God's Will : Ignatius of Loyola's Teaching on Christian Decision Making*. St. Louis :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91.
- Tylenda, Joseph N. "The Books That Led Ignatius to God." *Review for Religious* 57(1998) : 286-298.

3. 다른 자료

- Tracy, David. *Plurality and Ambiguity : Hermeneutics, Religion, Hop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4.